

전후일본의 보수주의와 『고코로』

장인성

* **지은이 | 장인성**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도쿄대학교 종합문화연구과 국제관계론 전공에서 유학적 사유의 관점에서 근대적 사유를 포착하는 근대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정치사상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으며, 요코이 쇼난(横井小楠)과 김윤식의 국제정치사상을 중심으로 한 개항기 한일 정치사상 비교 연구로 학술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동아시아 국제사회론, 일본사상사, 동아시아 국제정치사상, 동아시아 개념사 등이다. 주요 저서로 『장소의 국제정치사상』(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근대한국의 국제관념에 나타난 도덕과 권력』(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메이지유신』(살림, 2007) 등이 있다.

**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한국(HK)사업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가 수행하는 HK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짐.(과제번호 KRF-2008-361-B00006)

1. 머리말

흔히 일본의 보수주의 하면 강한 국가를 추구하는 내셔널리즘 혹은 애국심 같은 이념이나 행동가들의 우익적 행동을 떠올리게 된다. 실제 탈냉전과 지구화의 맥락에서 우익행동가들은 자기 귀속의 대상이자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규범적 가치로서 국가표상을 강화하는 한편, 역사교육을 통해 국가의식을 대중에 확산시키는 실천적 활동을 벌여 왔다. 보수이론가들도 우익행동가들과 거리를 두면서도 전후체제를 지탱해 온 진보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을 행하는 한편, 국가의식과 애국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언설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¹⁾

국가표상의 부활과 국가의식의 강화를 꾀하는 활동은 탈냉전과 지구화 현상에 대한 위기감의 표현이며, 전후일본의 보수주의가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음을 시사한다. 일본의 전후체제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일상적 보수'가 작동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경제발전에 따른 일본국민의 보수화가 보수정치의 일상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탈냉전과 지구화를 계기로 '싸우는 보수'가 부상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생활을 중시하는 일상적 보수의 모습은 후경에 물러선 듯하다. 보수의 투쟁성과 국가이념이 부상하면서 자유와 교양과 심미를 중시하는 교양주의적 보수는 현저히 약해졌으며, 탈냉전기 들어 투쟁(논쟁)적 보수의 활발한 활동으로 전후·현대 일본에서 일상적 보수의 존재는 희미해졌다.

그런데 전후체제를 주도한 정치세계의 정치적 현실주의와 지식세계의 진보주의에 비투쟁적으로 대항했던 일상적 보수는 전후일본의 보수주의를 생각할 때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사상적 경향이다. 일상적 보수를 드러낸 문화적 보수주의자들은 전후체제의 제도와 가치를 일정 부분 공유하면서 지배이념(진보)에 대응했고 일상문화와 일상생활의 감각에 기초해서 일본사회의 문화적 규범과 가치를 보수하고자 했다.

1) 이에 관해서는 장인성, 「현대 일본의 보수주의와 '국가' 표상」, 장인성 엮음, 『전후 일본의 보수와 표상』(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참조.

문예동인지 『고코로』(心)는 전후일본의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이 전후 체제 형성과 경제성장의 맥락에서 문화적 보수주의의 사유를 표출한 장이었다. 특히 진보적 제도개혁이 행해지고 민주주의 가치들이 형성되는 1940년대 후반~1950년대 일본의 맥락에서 고코로 동인들은 자유주의의 가치와 보수의 관점에서 진보주의와 과학주의와 정치주의에 대응하였다. 담론 권력을 장악하려는 투쟁성은 약했지만 진보주의와 정치적 현실주의와 차별화되는 일상적 보수의 특성을 보여 주었다. 고코로 보수지식인들의 활동과 사상은 전후체제 형성기에 이루어진 보수지식의 성립 양상과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의 실체를 드러내 주는 중요한 소재가 된다.

2. 전후체제와 지식사회

일본은 패전 후 두 세대 이상이 지났고 경제대국을 이루었기에 더 이상 ‘전후체제’라 부르기도 어색할 것이다. 더구나 전후체제를 규율했던 냉전체제도 종식되었다.²⁾ 하지만 전후체제를 규정하는 평화헌법과 미일동맹이 존재하는 한, 보수주의자들에게 ‘전후체제’는 여전히 핵심문제로 남아 있게 마련이다. 전후체제의 이념과 가치를 둘러싼 긴장 대립이 이어지는 한, ‘전후체제’는 여전히 일본인들의 사유를 규정하는 틀일 수밖에 없다. 논쟁적 보수주의자들이 전후체제에서 형성된 민주주의와 평화주의의 가치체계를 부정할 때, ‘전후체제’는 이들의 의식을 규율하는 강력한 표상이 되어 있다.³⁾

‘전후체제’는 전쟁과 패전의 경험이 만들어 낸 제도적·심리적 공간이며, 실재와 해석의 두 측면이 존재한다. ‘체도로서의 전후체제’는 평화헌법과 미일동맹이라는 제도로 규율되는 실재의 세계다. 패전으로 강제된 평화헌법과 냉전의

2) ‘전후의 종식’은 1956년 『경제백서』에서는 “더 이상 전후가 아니다”라고 선언한 이래 여러 차례 표명되었다. 하지만 나카 소네의 “전후정치의 총결산”이나 ‘전후 50년’, ‘전후 60년’이라는 슬로건에는 ‘전후체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암묵적 인식이 깔려 있다.

3) ‘전후체제’의 체제와 이념에 대한 비판은 에토 준(江藤淳), 니시베 스스무(西部邁), 사에키 게이시(佐伯啓思)의 저작들에 잘 나타나 있다.

로 성립한 미일동맹은 일본사회를 규율하는 제도적 규범으로 작용했다. ‘심리로서의 전후체제’는 이들 제도와 결부된 민주주의와 진보주의가 전후일본의 지식사회를 주도하는 지배적 이념과 가치로서 기능하고 이에 대항하는 이념과 가치로 구성되는 해석과 언설의 세계다. 평화헌법 옹호자들에게 ‘전후체제’는 확립된 정상체제이지만, 평화헌법의 전쟁포기 조항의 부당성과 헌법 성립의 비주체성을 들어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전후체제’는 해체해야 할 비정상체제다. 이러한 보수의 해석이 존재하고 해석을 둘러싼 진보와의 대립이 지속되는 한 ‘심리로서의 전후체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체제(정치체제·국제체제)는 제도를 매개로 이념·가치와 결부된다. 1940~50년대는 전후일본의 새로운 제도와 가치가 형성되는 시기였다. 현대일본의 가치체계가 민주화와 미일동맹에 기초한 전후체제를 전제로 한다면, 패전공간과 냉전형성기에 표출된 이념과 가치, 그리고 이를 담지한 지식의 존재양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식체계는 이념과 가치를 규정하지만 이념과 가치가 지식체계를 형성시키기도 한다. 이념은 그 자체로 성립하기도 하지만, 대항이념과의 상호작용이나 담론투쟁을 통해 형성되기도 한다. 전쟁과 패전의 공간에서 체제변혁의 동력과 체제의 강제력이라는 강력한 계기는 가치체계와 지식체계의 변형이나 생성을 유발하고 의제를 제공한다. 또한 체제변혁으로 촉발된 현실문제의 쟁점과 논거를 둘러싼 지적 긴장과 대립은 가치체계나 지식체계의 전환 내지 형성의 동력이 되었다. 지식의 존재양식 혹은 유형은 흔히 특정 쟁점에 관한 태도나 지적 성향을 규정하는 이념에 의존하지만, 매체(잡지)나 지적 그룹(연구회, 동인집단)을 매개로 한 심리적 동질감에서 나오기도 한다. 지식과 이념은 지식인 집단과 활동의 장으로서의 미디어를 매개로 하며, 집단과 미디어는 지식과 이념 형성의 장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지식인들의 언설은 체제와 매체와 지식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진다.

제도변혁과 질서변동 과정에서는 기존의 지배이념이 약화되고 변혁과 변동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간에 논쟁이 벌어지곤 한다. 패전과 냉전의 공간에서 전후일본의 보수와 진보는 새로운 전후체제의 제도(냉전체제, 평화헌법, 미일동맹,

민주제)와 가치(자유, 민주주의, 평화)를 공유하면서도 천황제와 국가의 존재방식에 관해 서로 다른 지적 태도를 보였다. 진보지식인들이 전후체제의 새로운 민주주의 이념과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새로운 일본의 형성을 모색했다면, 보수지식인들은 꼭 투쟁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후체제의 지식사회를 주도한 진보와 담론투쟁을 벌이면서 새로운 체제에서의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대해 비평했다.

동인지 『고코로』는 전후일본의 보수지식인들이 진보적 언설과 민주주의와 안보공간에 대응하여 보수적 사유를 표출한 장이었다. 『고코로』는 문학과 예술, 사회과학을 아우르면서 개인 기고와 좌담회 등으로 구성된 월간 문예지였다. 고코로 지식인들은 이 동인지를 통해 문화적 보수의 정체성을 드러냈다.⁴⁾ 이들은 전통, 인간, 개인, 자유와 같은 개념들에 비중을 두면서 개체와 전체, 문화와 정치, 전쟁과 평화 등 광범위한 토픽에 걸쳐 보수적 사유를 자유롭게 개진하였다. 고코로 보수주의는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와 체제의 상관성 속에서 형성된 전후일본의 지식사회에서 민주화개혁과 냉전체제에서의 안보(전쟁과 평화) 쟁점에서 진보주의에 대항하는 보수주의와, 새로운 지식체계로 부상한 과학주의(사회과학)에 대항하는 문화주의를 표방하였다.

3. 『고코로』와 지식인들

1) 『고코로』와 ‘올드 리버럴리스트’

『고코로』는 1948년 7월에 창간되어 1981년 7·8월 합병호로 중단될 때까지 33년간 존속한 월간 동인문예지였다. 문학자 아베 요시시게(安倍能成), 무사노코지 사네타쓰(武者小路實篤), 시가 나오키(志賀直哉), 나가요 요시로(長與善郎), 철학자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 무타이 리사쿠(務台理作), 법학자 다나카 고타로

4) 고코로 그룹과 고코로 보수주의는 학술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무관심은 학자들이 진보지식인의 사상에만 주목하는 경향에서 비롯될 것이다. 고코로 그룹의 사상에 관해서는 동시대인의 관찰이 있을 뿐이다. 久野收, 「日本の保守主義―『心』グループの思想をめぐって」, 『中央公論』 1958년 5月号; 山田宗睦, 「リベラルな保守派『心』グループ」, 『日本』 8-2, 1965년 2月号.

(田中耕太郎), 역사가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등 당대의 저명한 보수지식인들이 동인이었다. 고코로 지식인들은 메이지 시대에 태어나 자유민권기 이후 청년기를 보냈고, 다이쇼 시대에 교양주의와 자유주의를 사상적 기조로 삼아 문화인으로서의 명성을 얻은 자들이 많았다. 전쟁에 편승했던 자들이나 전후에 진보적 색깔을 띠게 된 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무사노코지, 시가, 아베가 핵심이었고 이들의 인맥이 고코로 그룹의 주된 구성원이었다.

패전 직후 다이쇼 교양주의자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이였기에 ‘올드 리버럴 리스트’로 불렸다. 진보적 개혁을 추구하는 전후의 맥락에서 보수주의 색채를 띤 ‘늙은’ 다이쇼 자유주의자·교양주의자라는 어감을 주는 다소 냉소 섞인 말이었다.⁵⁾ 때문에 이들이 참여한 『고코로』도 “노인잡지”라는 인상을 주었다.⁶⁾ 당사자들은 이 호칭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다나카 고타로는 세상 사람들이 『고코로』를 “노인들이 틀어박혀 좋은 기분이 되어 기쁨을 토하는 장소”로 보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에테르네르(eternal)한 것 앞에서는 노인도 청년도, 남도 여도, 외국인도 일본인도 없다……문제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있다”⁷⁾고 토로하기도 했다.

고코로 그룹은 운동체라기보다는 유연한 서클이었다. 『고코로』는 생성회(生成會)의 동인지로서 발행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무사노코지는 창간사에서 동인들이 지향할 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상과 현실은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잡지의 출현을 기뻐해 줄 사람은 의외로 많을 것이다. 누구나 우리를 좋아할 거라 생각지는 않는다. 자유를 사랑하고 자기 본래의 생명을 완전한 모습으로 살리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에

5) 1950년대에 『사상의 과학(思想の科学)』 지식인들은 고코로 그룹이 “전전에 보였던 보수적 경향을 전후에 분명하게 사상적 보수주의로 정착시킨 그룹”이었다고 평가했다(『戦後日本の思想』, 東京: 中央公論社, 1966, 76쪽).

6) 다카타 히로아쓰(高田博厚)는 1957년에 33년간의 재불(在佛) 미술활동을 끝내고 귀국했는데, 『고코로』를 읽고 “노인잡지”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술회한 바 있다(高田博厚, 『「心」について一眞の知性を求めて』, 『心』 1978년 12月号, 78쪽).

7) 田中耕太郎, 『生成言(三)』, 『心』 1948년 12月号, 63쪽. 아베 요시시게도 “일본의 어떤 젊은 소위 진보주의자는 공산주의가 진정한 자유주의라 하고, 우리를 시대에 뒤떨어진 올드 리버럴리스트라 경멸한다”고 말한 바 있다(安倍能成, 『平和と自由についてアメリカ人諸君に訴ふ』, 『心』 1953년 4月号, 10쪽).

게 사랑받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기의 신념을 꺾으면서까지 타인이 좋아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자가 아니다. 취미도 다르다. 서로 자기에게 충실한 사람들을 존경하며 타인을 비틀고 싫어하는 자에 반대한다. 생성회 모두는 자기를 지키면서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걸 서로 고려함이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걸 믿는다. 이 모임에 속했다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없다면 곤란하다. 서로 개성은 다르다. 살고 있는 세계의 범위도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배울 점도 있다. 모든 사람이 같은 형(型)이 되거나 같은 색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모두 마음껏 자신이 쓰고 싶은 걸 쓴다. 그런 잡지였으면 한다.⁸⁾

조직의 유연성과 사상의 다양성은 상관적이다. 그룹의 유연성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차이를 중시하면 개성이 드러나 공통성을 찾기 어렵고 동일성을 중시하면 개성이 무시되기 십상이다. 고코로 그룹은 “차이를 가진 동일성”을 지향했다.⁹⁾ 차이는 개성 간의 다름을 뜻하지만, 개성들로 전체성을 구성할 때 차이는 상대화될 수 있다. 개성과 전체성의 상관성은 후술하듯이 고코로 보수주의자들에게 중요한 논점이었다.

이러한 정신은 『고코로』의 존재이유였고 종간 때까지 지속되었다. 창간 30주년에 『고코로』 편집자는 “과도기 현상에 직면한” 현대에 『고코로』의 역할이 “미래를 향한 ‘본질적인 물음’과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장을 보전하고, 창조를 향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간적 유대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전통은 미래를 향해 창조와 마주하는 자 앞에 절실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¹⁰⁾ 미술가 다카타 히로아쓰(高田博厚)는 『고코로』 지식인들이 “시대의 사조를 개념적으로만 수용하고 ‘새로운 것’을 좇는 데 열심이며, 때문에 ‘사상’ 자체도 ‘대중화’되고 흥미 위주로 되어 간 전후일본의 현실에서 ‘자신의 내

8) 『心』創刊号, 1948년7月号, 「권두언」, 4쪽.

9) 山田宗睦, 「リベラルな保守派『心』グループ」, 285쪽.

10) 心編集部, 「創刊30周年を迎えて—傳統と未来を見詰める」, 『心』1978년 12月号, 77쪽.

면'에서 지키려는 이상주의적 정신태도"를 견지했다고 보았다.¹¹⁾ 종간호는 『고코로』가 33년 동안 “자유인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시대”와 “모든 분들이 용기를 갖고 곳곳이 살아간 역사”¹²⁾를 보여 주었고, “과거에 뿌리내린 부동의 눈으로 현재를 조망하고 조용히 일본을 응시하는 태도”¹³⁾를 견지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러한 일관성은 미래를 향한 “본질적인 물음”과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동인들의 유대감에서 나왔을 터다. ‘고코로’(마음)가 어떤 연유로 잡지명에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자신들의 존재를 나타내 주는 표상이었기에 공감했던 것이라. 그들에게 ‘고코로’는 우선 “일본인의 마음”이었다. 문학자 다케야마 미치오(竹山道雄)는 『고코로』가 “일본의 서민적이랄까, 보편적인 생각을 가장 대표적으로 전하며, 일본인의 마음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¹⁴⁾고 언급한 바 있다. ‘마음’은 세계에 열려 있는 것이기도 했다. 고코로 보수주의는 세계주의에 맞닿아 있었다. 조치(上智)대학 독일인 신부 로젠도르프(Joseph Roggendorf)는 ‘고코로’는 화혼(和魂)과 더불어 양혼(洋魂)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고코로 지식인들은 “세계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는 사람들”이며, 고코로 그룹의 ‘기품’과 ‘연대성’은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비평하고 있다.¹⁵⁾

일본과 세계를 관통하는 ‘마음’은 유연한 보수주의를 허용한 고코로 지식인들의 교양주의와 자유주의에 맞닿아 있다. ‘교양’이 유럽의 정신문화를 보편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교양주의는 일본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매개할 여지를 제공한다. 정치적 자유주의보다 개인적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심성도 “세계의 마음”과 통하는 유연성을 허용했을 터다. 유연성은 고코로 보수주의의 건강성¹⁶⁾을 뜻한다. 고코로 보수주의의 건강성은 개성을 중시하면서 전체성을 생각하고, 지난 것(전통)을 살리되 현재의 변화를 부정하지 않는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11) 高田博厚, 「『心』について—眞の知性を求めて—」, 『心』 1978년 12月号, 78쪽.

12) 武見太郎, 「『心』の果たした役割」, 『心』 1981년 7·8月号(終刊特別号), 14쪽.

13) J·로젠도르프, 「和魂」, 『心』 1981년 7·8月号(終刊特別号), 19쪽.

14) 다케야마 미치오(竹山道雄)의 발언, 「座談會—『心』グループ批判を読んで(이하「座談會」)」, 『心』 1958년 8月号., 31~32쪽.

15) J·로젠도르프, 「和魂」, 19~20쪽.

16) ‘문화’와 ‘교양’을 비판했던 사회과학자들도 고코로 보수주의의 건강성은 인정했다(『戦後日本の思想』, 77쪽).

또한 고코로 지식인들의 교양주의와 자유주의는 문화주의로 표현되었다. 교양을 지칭하는 ‘문화’는 과학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회과학자들에게는 과학을 모호하게 하는 추상적 관념이었지만, 고코로 지식인들에게는 ‘생활’에 기초한 실재적 개념이었다.

교양주의와 자유주의는 고코로 동인들을 엮어 주고 『고코로』를 존속시키는 이념이었지만, 바로 이 때문에 대중과의 거리를 자초하기도 했다. 『고코로』는 “나쁜 잡지는 아니지만 팔리는 잡지는 아니”었다.¹⁷⁾ 심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양주의와 개인적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주의는 대중을 동원하거나 유인할 이념과 비전을 제시할 성격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동인들은 독자층을 넓혀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을 늘리기보다는 동인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힘썼다.¹⁸⁾ 때문에 초기부터 재정상의 어려움도 겪었고 몇 차례 휴간하기도 했다.

『고코로』가 존속한 기간은 전후일본이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경제성장을 이룬 시기와 겹친다. 한 세대에 걸친 고코로 보수주의의 길다란 생명력은 진보담론이 지식사회를 주도한 전후체제에서 일상적 보수나 일상의 보수 감각이 일정한 의미를 가졌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고코로 보수주의는 일본사회가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는 순간 스러질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 이익이 ‘교양’을 압도하는 순간, 경제적 풍요에서 생성된 일상적 보수가 부상하면서 교양주의와 자유주의에 입각한 일상적 보수는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메이지 태생의 올드 리버럴리스트와 동 세대의 독자층이 사라졌을 때 『고코로』는 소멸될 운명이었다.

2) 인적 네트워크와 고코로 지식인

앞서 언급했듯이 『고코로』는 무샤노코지, 시가, 아베 등이 주도해 만든 생성회(生成會)의 동인지 형태로 발간되었다. ‘생성’은 패전 상황과 민주화개혁의 맥락에 부응하여 새것을 형성하거나 변화를 모색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추측된다.¹⁹⁾

17) 隆, 「余録」, 『心』 1953년 4月号, 87쪽.

18) 串田孫一, 「終刊号の編集後記として」, 『心』 1981년 7·8月号(終刊特別号).

19) ‘생성회’는 나가요 요시로(長與善郎)가 붙인 명칭인데(『心』創刊号, 아베의 후기), 작명 의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초기에는 매달 생성회 회원 명부가 실렸는데, 회원이 계속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 생성회는 지방 지회들이 결성되면서 전국 모임으로 확대되었다. 생성회는 회원 자격과 구성이 유연한 지식인 네트워크였고 몇 개의 핵을 가진 클러스터였다. 때문에 운동체로서의 결집력은 강하지 못했다. 생성회는 전국적 조직이었지만, 『고코로』는 중앙의 편집자와 몇몇 핵심인물이 꾸려나갔다.

생성회 동인의 일부는 삼년회(三年會)의 구성원이었다. 삼년회는 전쟁 말기에 외무대신 비서관 가세 도시카즈(加瀬俊一)가 기도 고이치(木戸幸一) 내대신과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 외무대신의 지원을 받아 결성한 것이었다. 패전시 뒤따를 사상적 혼란에 대처하고 일본을 재건할 사상적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 야마모토 유조(山本有三), 아베 요시시게, 시가 나오야, 와쓰지 데쓰로, 다니카와 데쓰조(谷川徹三), 다나카 고타로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외상 관저에서 비밀리에 정기모임을 가졌다. 구미 열강과의 선린을 중시한 외무성 관료들에게 연루된 것은 아마도 그들의 자유주의적 성향 때문이었을 터다. 아베, 시가, 와쓰지, 다나카 등은 생성회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²¹⁾

『시라카바』(白樺) 동인들도 고코로 지식인의 네트워크에 연루되었다. 무사노코지 사네아쓰는 『고코로』의 창간과 운영을 주도한 핵심이었다.²²⁾ 『고코로』의 명운은 무사노코지와 거의 함께했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독문학자 테즈카 도미오(手塚富雄)는 “무사노코지의 타계[1976년 4월]는 『고코로』에 치명적이었다. 때문에 이제 『고코로』가 자발적으로 물러날 결의를 한 것은 자연스럽고

20) 생성회 초기 동인을 보면, 창간호 명단에는 와쓰지 데쓰로, 다나카 고타로,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 쓰다 소키치, 나가이 가후(永井荷風), 무사노코지 사네아쓰(武者小路實篤), 무타이 리사쿠(務台理作), 야나기 무네키(柳宗悦), 야나기다 구니오(柳田國男), 고이즈미 신조(小泉信三), 아베 요시시게, 니무라 이즈루(新村出), 시가 나오야 등이 보인다. 제2호에는 아마노 데이유(天野貞祐)가, 제3호에는 스즈키 다이세쓰(鈴木大拙)가 추가되었다.

21) 日本外交学会 編, 『太平洋戦争終結論』(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58); 학술·문화계에서도 도쿄제대 법학부 7교수(南原繁, 高木八尺, 田中耕太郎, 我妻栄, 末延三三, 岡義武, 鈴木竹雄)를 중심으로 종전 공작이 있었다. 다나카 고타로는 양쪽에 걸쳐 있었지만, 난바라는 고코로 그룹에 속하지는 않았다(山田宗睦, 『リベラルな保守派「心」グループ』, 288쪽).

22) 장기간 편집자를 맡았던 기무라 슈키치로(木村修吉郎)는 무사노코지의 “첫꿈”이 창간의 계기였다고 술회하고 있다. 동인지를 발행하자고 무사노코지를 설득하고 나가요 요시로(長與善郎)에게도 권유했지만 둘다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무사노코지가 1948년 정월 동인지를 창간하는 꿈을 꾀다 실행에 옮겼다고 한다(木村修吉郎, 『余録』, 『心』 1976년 7月号, 武者小路實篤追悼号).

현명한 일이다……이처럼 확실하게 종결지움으로써 무사노코지 씨에게 창피를 주지 않고 『고코로』답게 최후를 장식했다고 하겠다”²³⁾고 술회한 바 있는데, 의례적인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무사노코지 주위에 『시라카바』 옛 동인들이 모여들었다. 편집자 기무라 슈키치로(木村修吉郎)는 “우리들은 모두 『시라카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가 거의 없었다. 그 정도로 『시라카바』에 실린 소설은 물론이고 로망이나 기타 회화 등의 영향은 실로 위대했다. 그 중에서도 무사노코지 사네아쓰의 희곡 『누이』, 『애욕』, 『나도 몰라』 등은 걸작으로 꼽을 수 있다”²⁴⁾고 회상하고 있다. 시가 나오야도 시라카바 동인들이 집결한 또 다른 핵이었다. 시가의 자택은 전후 도쿄에 귀환한 시라카바 동인들이 자주 출입했던 ‘중심’이었다. 미술사가 미와 후쿠마쓰(三輪福松)는 전전부터 이곳을 드나들면서 무사노코지의 주변 인물들과 면식이 있었는데, “이곳에 모인 그룹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전후 『고코로』라는 걸 만들었을 때 ‘아아, 그 동료들이구나’라는 걸 바로 알았다”, “아마도 『고코로』는 새로운 의미의 『시라카바』라는 기분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회상하고 있다.²⁵⁾

『고코로』는 젊은 날 무사노코지, 시가 등이 인도주의를 표방했던 시라카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²⁶⁾ 고코로 교양주의에 보이는 심미적 성향이나 예술적 감성, 자유주의적 분위기는 시라카바와의 연관성을 암시한다. 시라카바 동인들은 고코로 그룹 1세대뿐 아니라 2세대에도 영향을 주었다. 역사가 스즈키 시게타카(鈴木成高)는 고코로 2세대가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고 “동기의 순수함”과 “인간의 순수함”을 존중한 시라카바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실토한 바 있다.²⁷⁾ 하지만 양자는 달랐다. 『시라카바』가 “미지수의 젊음의 표상”이었다면, 『고코로』는 쓰고 싶은 것을 쓰는, 개성이 강한, 은퇴를 거부한 나이 든 대가들의 집합

23) 手塚富雄, 「私にとっての『心』」, 『心』1981년 7·8月号(終刊特別号), 10쪽.

24) 木村修吉郎, 「余録」.

25) 三輪福松, 「知的交流の場として」, 『心』1978년 12月号, 80쪽.

26) 三輪福松, 「知的交流の場として」, 82쪽. 무사노코지의 딸인 수필가 무사노코지 다쓰코(武者小路辰子)에 따르면, 무사노코지는 『시라카바』 이후에도 잡지명이나 편집자를 몇 차례 바꾸면서 『아타라시키키타(新しき村)』를 발행하는 등 잡지발행에 힘썼다고 한다(武者小路辰子, 「『9心』往来一父と雑誌の誕生のことなど」, 『心』1978년 12月号, 85쪽).

27) 「座談会」, 42쪽.

이었다.²⁸⁾ 후자의 활동은 시라카바와 달리 동인들의 절친한 동료애에 기초한 결집력 강한 문화운동이 아니라 다양한 작가와 학자들이 포괄된 결집력 약한 문화 활동이었다.²⁹⁾ 전후 맥락에서 『고코로』는 『시라카바』의 재현일 수 없었다. 『고코로』는 전후 맥락을 풍미한 ‘진보’와 ‘과학’을 표방하는 새로운 지식인 그룹과 대결해야만 했다.

4. 과학주의와 문화주의: 사회과학자와 고코로 지식인

인적 네트워크나 클러스터의 유연성은 생성회나 고코로 그룹이 특정 이념에 의해 움직였다기보다는 유사한 사상적 경향의 집합체로서 기능했다는 사실을 뜻한다. 교양주의와 자유주의 자체가 조직과 운동을 산출하는 이데올로기가 되기 어렵다는 면도 있다. 올드 리버럴리즘이 다이쇼 리버럴리즘의 선형적 계승이 아니라 맥락적 부활이라면, 생성회 핵심 구성원들의 계보학적 연원보다는 생성회 구성원들이 소여의 맥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여의 맥락과 지배적 이념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중요해질 것이다.

1948년 『고코로』의 창간과 생성회 결성은 점령기 민주화개혁과 냉전 개시의 공간에서 진보이념이 부상하는 맥락과, 사회과학이 지식체계를 압도하는 맥락이라는 전후일본을 구성한 두 맥락에서 영위된 지식사회에 대한 대응이었다. 『세계』(世界)와 『사상의 과학』(思想の科学)이란 매체는 각 맥락에서 『고코로』 지식인들의 심리적 저항과 정체성을 일깨우는 존재였다. 『세계』는 민주화 개혁으로 민주주의 이념이 부상하고 냉전 개시로 새로운 안보공간이 출현하는 맥락에서 진보이념에 입각해 민주와 평화를 모색한 진보지식인들의 거처였다. 『사상의 과학』은 관념론적 사회과학에서 벗어나 실용주의적 사회과학을 모색한 새로운 사회과학자들의 장이었다. 고코로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와 ‘사회과학’에 대응하면서 자유주의적 보수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28) 武者小路辰子, 「『心』往来一父と雑誌の誕生のことなど」, 85쪽.

29) 三輪福松, 「知的交流の場として」, 80~81쪽.

1) 진보 대 보수: 『세계』와 『고쿠로』

생성회에는 전전의 삼년회 멤버가 함께했지만 직접적인 모체는 패전 직후인 1945년 9월에 결성된 동심회(同心會)였다. 동심회는 삼년회를 모태로 한 것이며, 시가 나오야, 무샤노코지 사네아쓰, 나가요 요시로, 야나기 무네토시, 와쓰지 데쓰로, 사토미 돈(里見淳), 다나카 고타로, 다니카와 데쓰조(谷川徹三) 등 60세 전후의 지식인들이 이십여 명이 결성한 모임이었다. 동심회 회원들은 다이쇼 교양주의와 자유주의를 익힌 문화인들로서 패전 공간에서 문화활동을 모색했지만 활동이 두드러진 것은 아니었다.³⁰⁾ 이들은 패전 공간에서 『세계』와 애증 관계를 갖게 된다. 『세계』 창간은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 사장 이와나미 시게오(岩波茂雄)가 오랜 친구였던 아베 요시시게에 의뢰해서 실현되었다. 동심회의 핵심 멤버인 아베가 창간에 관여하면서 동심회 회원들도 주요 필진으로 참여하게 된다. 동심회 회원들은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등 청년 지식인들이 제기한 ‘회한공동체’와는 다른 형태의 ‘회한’을 생각하고 있었고, 이와나미는 패전 직후 현실문제를 다룰 종합잡지 창간을 구상하던 참이었다.³¹⁾

하지만 동심회와 『세계』는 바로 결별하게 된다. 동심회 회원들은 『세계』를 동심회의 기관지나 동인잡지로 삼고 싶어했지만,³²⁾ 이와나미 측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 게다가 요시노 겐사부로(吉野源三郎) 편집장 등 편집진이 진보적 논조를 취하면서 동심회 교양주의자들의 보수적 논조는 『세계』에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 요시노 편집장이 『세계』 제4호에 실린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의 논문 ‘건국의 사정과 만세일계의 사상’에 항의하는 편집자의 말을 게재했을 때, 동심회와 『세계』의 결별은 결정적이 되었다.

30) 월 1회 정도 모여 담화도 나누고 강연활동을 하는 정도였지만, 회원들의 연령이나 생업 때문에 활동은 순조롭지 않았다(『心』創刊号, 아베의 후기). ‘동심회’라는 명칭은 야나기 무네토시가 붙인 것이었다.

31) 이와나미 시게오는 전전부터 종합잡지를 낼 의향이 있었고 한때 스스로 편집을 맡고자 할 정도로 의욕이 강했다. 이미 전전에 이와나미는 『思潮』(1916년 창간·1919년 폐간, 주간 阿部次郎), 『思想』(1921년 창간, 1928년 휴간, 주간 和辻哲郎; 1929년 재간, 주간 和辻哲郎, 편집자 谷川徹三·林達夫, 1946년 4월 휴간, 이와나미 사후에 성격을 바꿔 속간됨)을 발행했는데, “비교적 고답적인 잡지”였다. 이와나미는 현대 세계와 일본의 절실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 데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安部能成, 『「世界」と「心」と私』, 『世界』第100号, 1954년 4月号, 38쪽).

32) 『心』創刊号, 아베의 후기.

아베는 『세계』 창간에 관여하고 권두논문까지 썼지만 편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에 요시노 편집장의 노선에 거리감을 느꼈다. “끓는다든가 헤어진다든가 할 정도의 사건”은 없었지만,³³⁾ 1946년 1월 문부대신에 취임하면서 아베는 자연스레 『세계』와 멀어졌다. 아베는 훗날 『세계』 창간 100호 기념호에서 요시노의 “성실한 편집” 덕분에 『세계』가 세상에 알려졌다고 치켜세우면서도, 요시노가 쓰다 소키치의 글에 대해 “일종의 항의”를 한 것은 편집자로서 “지나치게 신경질적인 태도”이며 “『세계』의 편향”을 결정지은 계기였다고 비판하는 걸 잊지 않았다. 아베는 요시노 같은 “차세대 사람들”이 이와나미쇼텐을 좌우하는 상황에 불편해했고 “『세계』와의 거리”를 느꼈다.³⁴⁾ 아베는 『고코로』에 애착을 갖게 된다.

“『세계』와의 거리”는 요시노에 대한 아베의 불편한 심정뿐 아니라 교양파 문화인들이 느꼈던 진보적인 젊은 세대와의 세대차와 이념적 차이를 상징한다. “우리 차남은 『세계』는 애독하지만 『고코로』는 전혀 읽으려 하지 않는다. 최근 젊은 사람들은 아마 우리 차남과 같을 게다. 나도 『고코로』와 『세계』의 간격만큼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나 감정이나 감각에는 친근감이 없다”³⁵⁾는 아베의 진술에서 『고코로』와 『세계』를 둘러싼 보수적 감정과 진보적 감정의 괴리, 그리고 진보이념에 대한 보수주의자의 심리적 거리를 잘 느낄 수 있다. 『세계』의 급부상으로 진보이념이 확산된 데 따른 괴리와 거리였다. 『세계』가 1949년 특집호와 이듬해 3월과 12월에 평화문제를 다루고 1951년 10월에 강화문제 특집을 내는 등 ‘민주’와 ‘평화’의 쟁점을 주도하면서 『중앙공론』과 『개조』를 앞질러 젊은 세대 사이에 폭넓은 지지를 얻으면서 대표적 종합시사지로 급성장했다. 『세계』의 부상은 진보이념의 확산을 뜻했다.

아베는 『세계』의 진보주의 “편향”에 불편한 심정이었다. 아베는 『세계』 지식인들이 “어쨌든 세계와 일본의 현실을 보고, 혹은 보고자 애쓴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세계』가 우리에게 알려 주는 세계와 일본의 현실”과 “우리가 신뢰할 수

33) 『心』創刊号, 아베의 후기.

34) 安部能成, 「『世界』と『心』と私」, 39~41쪽.

35) 安部能成, 「『世界』と『心』と私」, 40쪽.

있는 세계와 일본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강하게 느꼈다. 진보지식인들이 세계와 일본의 “진상”을 알리기보다 “편향된 입장”에서 “어떤 일면”만 본다는 것이다.³⁶⁾ 보수적 자유주의자가 보기에 ‘진상’은 정치적 이념으로 덧칠되고 있었고, 정치적 이념이 ‘현실’을 규정해 가고 있었다. 아베는 “힘써 『세계』를 읽으려는 의지”가 있어도 “잘 읽히지 않는” 심정을 토로한다. “의지가 있어도 잘 읽히지 않는” 까닭은 “편향된 입장”에 근접하기 어렵게 만드는 자기조건, 즉 타고난 ‘기품’·‘교양’·‘연령’ 때문이었다.³⁷⁾ 기품·교양·연령—올드 리버럴리스트의 조건!—은 내키지 않아도 읽으려 하는 의지를 낳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일면만을 보는 편향된 입장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억지한다. 아베가 평화문제담화회 좌장으로 『세계』를 띄워 준 ‘평화문제’에 연루되면서도 『세계』의 진보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애매성을 보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애매성은 ‘기품’, ‘교양’, ‘연령’을 갖춘 올드 리버럴리스트-보수적 자유주의자들에게 공통된 것이었다.

『고코로』는 편향된 입장에 느끼는 불편함, 혹은 기품·교양·연령이 통하지 않는 맥락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에서 생겨났다. 『세계』의 진보적 정치주의로부터의 소외감, 혹은 진보지식인 그룹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느꼈을 때, 동심회는 『세계』에 대항할 매체가 필요했다. 여기서 보수적 문화주의를 지향하는 『고코로』가 탄생했고 생성회가 결성되었다. 이 지점은 시라카바 동인들이 합류하는 결절점이기도 했다. 시라카바 동인들의 문예주의와 동심회 인사들의 문화주의가 자연스레 조우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생성’은 비우호적 혹은 대결적 타자의 존재에 의해 촉발되는 측면도 있고 수동적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비우호적 맥락 속에서 소외되어 갈 때 능동적으로 자기존재를 증명하려는 의식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고코로』의 출현은, 다나가 고타로에 따르면, “종래의 종합잡지의 [진보적] 경향에 대한 항의”였다. 소극적 항의에 그치지 않고 “우리들 사이에 결여된 가장 중요한 뭔가”를 공급함으로써 “진정한 문화건설에 공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36) 安部能成, 『「世界」と「心」と私』, 41쪽. 아베는 이러한 ‘편향’을 『世界』뿐 아니라 이와나미쇼텐에서 발행한 『経済学小辭典』, 『日本資本主義講座』 등도 포함해서 지적하고 있다.

37) 安部能成, 『「世界」と「心」と私』, 41쪽.

었다. 좌와 우를 떠나 “가장 중요한 것, 즉 사상적 절조”가 결여된 상황, 그리고 저널리즘이나 출판계가 “일반대중의 관대함과 건망성을 이용하여 금일에도 무절조 집단의 발호를 방임하”는 상황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³⁸⁾ 하지만 다이쇼 교양주의자들 모두가 이 같은 분노를 공유했던 것은 아니다.

2) 과학 대 문화: 『사상의 과학』과 『고코로』

고코로 교양주의자들은 19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초반에는 민주화와 안보문제가 쟁점화되는 맥락에서 진보지식인들의 진보 ‘이념’에 대응했다면, 50년대 초반 이후에는 사회과학자들의 ‘지식’에 대항해야만 했다. 50년대 교양주의는 실용주의를 표방한 진보지식인들의 ‘사회과학’에 대한 반발이었다. 『사상의 과학』 지식인들은 이념적인 ‘넓은 사회과학’(맑스주의)을 벗어나 실용주의적인 ‘새로운 사회과학’을 주도하고 있었다. 고코로 교양주의자들은 이들 사회과학자들에 비판적이었다. 『사상의 과학』 지식인들의 고코로 비판과 고코로 지식인들의 반비판을 통해 고코로 지식인들의 보수주의 사상은 분명한 모습을 드러낸다. 논쟁의 계기는 1958년 5월, 『사상의 과학』 멤버인 철학자 구노 오사무(久野収)가 고코로 보수주의에 관해 발제를 하고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 후지타 쇼조(藤田省三)가 토론에 임했던 토론회였다.³⁹⁾

구노는 발제를 통해 고코로 그룹의 보수주의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그에 따르면, 고코로 지식인들의 사상적 특징은 반속(反俗)적 엘리트의식, 문화주의, 전통의식, 그리고 교양주의였다. 반속적 엘리트의식은 “재능과 취미의 귀족주의”, “정신의 귀족주의”, “황실의 울타리” 의식에서 나오는, 문화인으로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인텔리주의, 일류주의, 지도자의식이다. 달리 말하면, 대중정치나 반체제적 대중조직화를 혐오하고, 지성과 감성을 기능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회적 신분으로 보는 의식이다. 문화주의는 “일본 국가의 문

38) 田中耕太郎, 『生成言(三)』, 『心』 1948년 11月号, 64쪽.

39) 이 토론회는 『日本の保守主義: 『心』グループの思想をめぐって』, 『中央公論』 1958년 5月号에 실렸고, 전체 토론회는 훗날 久野・鶴見・藤田, 『戦後日本の思想』(東京: 中央公論社, 1966)으로 간행되었다.

화적 유산을 중시하고 소중히 한다는 생각”, “세계의 최고의 문화적 유산을 섭취한다는 생각”이다. 구노가 보기에 고코로 지식인들은 구조적·사회과학적 인식이 아니라 “어프리케이션(실감·감상)의 입장”에 서서 “인간의 문화가 경제나 정치를 움직인다는 강한 문화주의”를 영위하고 있었다. 전통의식은 “일본과 세계 속의 일류의 전통을 소화해서 일본 속에 살려 나간다”는 생각이다. 고코로 지식인들은 전통을 집단주의적·전체주의적으로 보지 않고 인터퍼스널하게 생각하며, 전통의 분석을 “개인 주체를 인정하고 서로를 구체적으로 결부시키는 방법, 체험을 결부시키는 이해를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교양주의는 “사회과학과 법칙화 인식을 경시하는 사상”, 구체적으로 시라카바의 예술주의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문학 혹은 사상가들의 인격주의에 결집된 철학주의를 뜻한다. 이러한 교양주의는 “비정치적 사상”이자 “규범주의”로서 “실증지”, “법칙지”를 경시하고 “교양지”, “해탈지”, “개성지”를 중시하는 인물주의와 주관주의로 흐르기 쉽다. 때문에 맑스적 법칙과학과 객관주의에 반발하고 전문과학의 전문화나 개별화에 반대한다는 것이다.⁴⁰⁾

구노의 분석은 고코로 교양주의의 상호연관된 특징을 설명한 것이었다. 구노는 문화인들의 교양주의가 자유주의와 결부되어 있지만 그 본질이 보수적 심성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다. 고코로 지식인들이 전전에는 리버럴리스트를 자처했지만 사상적·정치적 기능을 보면 보수주의였는데, 일급 학자나 예술가라는 자의식이 강했고 새로운 사상이나 운동에 비교적 둔감했기에 “보수적이라는 심정, 마음가짐”과 “학문적 문화적 보수주의의 자세”를 보였고, 개전 과정에서는 국민통합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본심보다 좀 강하게” 보수주의(내지 반동주의)적 발언을 했다고 말한다. 교양주의자들이 중도적 입장에서 우파의 국체론과 좌파의 진보주의·혁명주의를 혐오했다는 사실도 지적하는데, 이러한 중도적 입장 역시 보수적 심성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⁴¹⁾

40) 『戦後日本の思想』, 80~81쪽.

41) 『戦後日本の思想』, 73~74쪽. 구노는 동시대의 밀리턴트 리버럴(矢内原忠雄, 河合榮治郎, 正木ひろし, 岩波茂雄 등)은 고코로 그룹보다 좌측에 있었다고 보았다.

문화인의 교양주의와 보수적 심성을 드러냄으로써 올드 리버럴리스트의 ‘자유주의’를 상대화하는 비평의 준거는 정치적 자유주의였다. 구노는 관용이 불관용과의 투쟁에서 성립한다는 존 로크의 전투적(militant) 자유주의와 달리, 고코로 지식인들은 투쟁을 불관용으로 보면서 관용과 불관용을 초월해 버렸고, 파시스트의 광신과 불관용은 물론이며 이에 대한 저항까지도 초월해 버렸음을 지적한다.⁴²⁾ 또한 모든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관용을 보이면서도 정치주의를 문화반동으로 간주해 버리는 불관용을 보였다고 말한다.⁴³⁾ 고코로 지식인들의 교양주의와 보수적 심성에 간직된, 정치적 투쟁을 초월하는 문화적 관용과, 정치주의에 대한 불관용의 기묘한 공존을 읽어 내는 구노의 시선은 예리하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문화적 자유주의의 유연성 혹은 애매성을 비판한 것이라 하겠다.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문화주의 국가관에 대한 구노의 비판도 궤를 같이 한다. 구노는 “진정한 자유주의자”라면 국가를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법제도로 봐야 하는데, 고코로 보수주의자들은 맑스적 국가관은 물론이요, 자유주의 국가관까지도 “추상적 개념주의”라 배척하고, 국가를 역사와 전통에 기초한 “구체적인” “국민의 생활공동체”로 규정해 버린다고 비판한다.⁴⁴⁾ 여기에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진정한 자유주의”로 간주하면서 문화적 자유주의를 “보수적 심성”(문화)과 “자유주의적 심정”(정치)으로 폄하하는, 혹은 교양주의적 심정의 비과학성을 추궁하는 구노의 과학주의가 엿보인다. 고코로 교양주의자들이 사회과학자의 자유주의적 국가관을 추상적 개념으로 간주하고, 사회과학자들이 고코로 지식인의 문화주의적 국가관을 구체적 실재로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자유주의 개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구노는 국가를 인권 옹호의 법적 기제로 보는 국가관에 입각해서 고코로 그룹의 공동체 국가론을 판정한다. “추상적 개념주의”에 기초한 ‘사회과학’을 잣대로 “구체적 공동체”를 중시하는 ‘교양주의’를 재단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치적 자

42) 『戦後日本の思想』, 73~74쪽.

43) 『戦後日本の思想』, 80쪽.

44) 『戦後日本の思想』, 74쪽. 아울러 고코로 그룹의 천황제관에 보이는, 정치적 권위에 대한 사고방식이 공적 장면에서는 자유주의적보다도 보수주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한다.

유주의만이 자유주의라 말한다면, 전전 일본에 대해 자유주의를 말하기 어렵고 '올드 리버럴리스트'라는 개념 자체도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문화 대 정치의 대립구도를 설정하는 관점으로는 문화와 정치의 불가분성에 주목하는 교양주의를 포착해 내기 어렵다. 또한 구노는 전후 고코로 그룹의 보수주의의 연속성을 드러내고자 전전 교양주의의 보수적 성격을 부각시키지만, 전전과 전후의 맥락에서 보수와 진보를 규정하는 조건의 상이함을 무시해 버릴 때, 전전의 교양주의적 자유주의가 전후의 보수주의에 의해 재규정되고, 재규정된 전전을 가지고 전후의 보수주의를 재조명하는 오류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가 다이쇼 맥락과 전후 맥락에서 드러나는 방식은 같을 리 없다.⁴⁵⁾

후지타 쇼조는 교양주의에 더 신랄했다. 구노가 교양주의의 보수성을 끌어내 교양주의의 자유주의적 성격을 털어 내고자 했다면, 후지타는 교양주의가 만들어 내는 국가상을 해체하고자 했다. 그에게 교양주의는 “문화적 인터내셔널리즘의 형식”, “과학 없는 사상주의”로서 “파괴, 청소”해야 할 대상이었다. 특히 후지타는 고코로 지식인들의 ‘문화국가’를 전면 부정한다. ‘문화국가’는 ‘문화’가 ‘정치’를 압도하거나 ‘문화-정치’의 관점에서 문화 자체를 국가로 삼기 때문에 정치와의 긴장감이 없다는 말이다. ‘군국일본’과 ‘문화일본’의 구성물인 천황제에서 ‘군부’를 쫓아낸 것일 뿐, 국가의 보호를 받는 문화뿐 아니라 국가를 지배하는 문화를 함축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후지타는 ‘문화’를 기능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문화국가’의 문화 우월성을 타파하고 ‘정치’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후지타는 구노와 마찬가지로 고코로 지식인들이 추상적 가치와 대결하고 생활자 집단에 주목하는 것에도 비판적이었다. 역사는 일반자를 위해 작용하고 개별적·인격적인 것을 억누르는 법칙적·비인격적 객관인데, 그들에게는 역사의 비인격화 작용과 대결하려는 의식이 없다는 것이다.⁴⁶⁾

후지타의 교양주의 비판과 문화국가상 해체는 정치에 대한 문화의 우월을

45) 고코로 지식인들이 사회과학자의 비판에 대해 “설령 정치적 기능에 집중할지라도 고코로 그룹의 현재 모습만을 문제 삼을 뿐 젊은 시절의 역할을 무시한다”(『座談會』, 32쪽)고 반발했을 때,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46) 후지타 쇼조(藤田省三)의 발언, 『戦後日本の思想』, 92~93쪽.

부정하고 문화를 기능적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문화와 정치 사이의 긴장감과 정치의 역동성을 확보하려는 정치관에서 비롯된다. 문화 대 정치의 대립구도에 서 과학주의를 가지고 문화-교양주의를 재단해 버린 구노와는 달랐다. 하지만 구체적 생활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역사를 인격적인 주관적 실천으로 보는 고코로 보수주의자들이 기능적 관점에 입각해서 문화를 포착하고 역사를 비인격적인 객관적 법칙 혹은 추상적 가치로 상정하는 사회과학자의 논법을 수용할 여지는 없었다. 문화의 기능적 이해에 의거한 문화와 정치의 긴장은 논리적 구성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 처방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쓰루미 슌스케는 이를 간파하고 있었다. 쓰루미는 구노나 후지타와 달리 고코로 지식인들의 ‘문화’ 개념에 얼마간 우호적이었다. 쓰루미도 고코로 지식인들의 교양주의가 ‘문화’를 ‘국가’의 틀 속에 두는 “문화국가의 이념”임을 지적한다. 하지만 ‘문화국가’ 개념을 부정하지 않았을뿐더러 교양주의자들이 일본정부의 슬로건에 편승하지 않고 전쟁 말기부터 ‘문화국가’상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사상주의’가 과학기술을 통하지는 않지만 과학기술을 낳는다는 점도 인정한다. 쓰루미는 국가(혹은 정치)의 틀 속에 문화를 내장한 것으로 ‘문화국가’를 이해함으로써 ‘문화’를 긍정할 수 있는 일정한 기반을 마련했고, 과학기술과 교양주의(사상주의)의 연관성을 설정함으로써 후자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했다. 쓰루미는 ‘문화’를 ‘정치’의 대립개념으로 이해한 구노나, ‘문화’를 기능적으로 파악하여 ‘정치’의 자율성을 우선한 후지타와 달리, ‘문화’를 ‘과학’을 만들어 내는 실체개념으로 이해했다. 아울러 고코로 그룹이 “민주주의적인 감정경향”을 보지했지만 전후세대와는 단절된 “혁명 없는 민주주의”였다고 지적하면서도, 민주주의적 감정경향의 “존재증명”은 필요없다고 말한다.⁴⁷⁾ 과학기술과의 연관성을 통해 ‘문화’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적 감정경향”(교양)과 “존재증명”(과학)의 방법론적 분리를 통해 ‘교양’(사상)에 일정한 가치를 인정했던 것이다.

47)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의 발언, 『戦後日本の思想』, 94쪽.

쓰루미에게는 객관주의와 과학주의로 판정할 수도 없고 주관주의라 비난만 할 수도 없는, 문화주의의 존재의미를 인정하는 심리가 읽힌다. 이 심리에서는 고코로 지식인들이 사상과 이론의 구별이 없거나 이론이 결여되어 있다는 구노의 비판⁴⁸⁾이나, 우익들처럼 국가를 지탱하는 강력한 신화도 없기에 “사이언스(과학)도 없고 미토스(신화)도 없다”는 후지타의 비판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과학도 신화도 없는 애매성에 ‘교양’,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일 것이다. 사회과학자들은 고코로 지식인들이 ‘과학’과 ‘이론’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국민 속에 있는 초정치주의와 질서감각에 부합하는 바”가 있음을 인정한다. “기술지”와 “지배지”는 “낮은 지”이고 “교양지”와 “해탈지”는 “강한 지”라는 문화적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이 “일본의 국민대중의 교양이나 해탈의 사고방식과 의외로 통하는 바”가 있으며, 교양주의자들이 “문화상의 내셔널 리더인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실토한다.⁴⁹⁾ 교양주의(초정치주의)가 대중에 통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사회과학자들은 교양주의자들을 비판한 논거의 취약성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고코로 지식인들은 사회과학자들의 비평에 가만 있지 않았다. 부리나케 좌담회를 열어 사회과학자들을 성토했다.⁵⁰⁾ 아베 요시시게, 스즈키 시게타카, 와쓰지 데쓰로, 다니카와 데쓰조, 다케야마 미치오, 무사노코지 사네아쓰 등이 참석했다. 교양주의자들은 『세계』와는 온건하게 결별했지만 사회과학자들에게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감정적이기조차 했다. 구노의 발제는 “내용 검토”가 없는 “꽤 조잡한 레테르 붙이기”로 치부되었다. 후지타와 쓰루미의 토론은 “jawab방언”으로 폄하되었다. “적당한 미지근한 사상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만 잘난 듯 생각하고 쟁론 체하는” 태도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고코로 그룹을 논하는 방식이 마뜩잖았다. 자신들이 지닌 동양의 전통과 동양적 심정을 “칭찬하는 듯하면서 동시에 헐뜯는” 행태나, 자신들에게 “르상티망(원한)”과 같은 병적 감정이나 자유주

48) 구노 오사무(久野収)의 발언, 『戦後日本の思想』, 93쪽.

49) 『戦後日本の思想』, 80쪽.

50) 「座談会 — 『心』グループ批判を読んで」(이하 「座談会」), 『心』1958년 8月号.

의가 지녀야 할 전투적 혁명적 심정이 없다는 비평도 불만이었다.⁵¹⁾

고코로 지식인들은 무엇보다 인간 중시의 관점에서 사회과학에 반발했다. 고코로 보수주의자들은 사회과학자들이 들이댄 정치적 기능이란 잣대와 사회조직을 중시하는 관점에 반발했다.⁵²⁾ 사회과학자들은 법적 제도(국가) 속의 인간의 문제를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사노코지는 개인이 주(主)이고 정치가 종(從)인데 사회과학자들은 정치를 주로 생각하고 인간을 정치를 위해 희생시킬 수도 있는 물(物)로 간주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인간의 가치는 역할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 있고, 정치의 기능은 인간을 위해 있다고 강변한다.⁵³⁾ 고코로 지식인들은 문화(학문과 예술)에도 독자적인 영역과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치가 문화를 파괴하므로 정치를 혐오한다고 말하는 사회과학자들에 반발했다. 또한 전통의식과 공동체의식에 대해서도 윤리는 추상적 이념에 의해 즉각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의 시련을 거쳐 성립하며, 여기서 미래의 주체적 창조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⁵⁴⁾

엘리트주의와 관련해서도 반발이 있었다. 스즈키는 극단적 이론이 범람하는 때에 고코로 지식인들이 “당연한 걸 더 소중히” 하는 입장과 “단지 좋은 걸 있는 그대로 존경하는 정신”을 가졌을 뿐 엘리트의식은 아니라고 반발한다.⁵⁵⁾ 문화주의와 관련해서는 사회과학자들의 비판에 반발하기보다는 우호적인 해석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다니카와는 쓰루미가 문화주의가 “전체적 인간”의 형성에 공헌한다면서 “하나의 전문과학의 전문화나 개별화”에 반대하였고, 다른 사회과학자들도 “과학의 법칙”을 중시했지만 인간이 “전문과학의 전문화”에 끌려들어가 “작게 쪼개져 버리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다.⁵⁶⁾ 구노도 문화주의가 사회과학적 인식을 어렵게 만들고 “실감의 입장”에서 문화가 경제

51) 「座談會」, 31~32쪽(확인!!!)

52) 다케야마 미치오(竹山道雄)의 발언, 「座談會」, 37~38쪽.

53) 「座談會」, 33~34쪽.

54) 다케야마의 발언, 「座談會」, 37~38쪽.

55) 스즈키 시게타카(鈴木成高)의 발언, 「座談會」, 39쪽.

56) 다니카와의 발언, 「座談會」, 44쪽.

나 정치를 움직인다고 본 관점에 불만을 가졌지 자신들을 집단주의나 전체주의로 매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인과 체험을 결부시키는 자신들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자들이 문화주의에 최소한의 의미를 부여한 것을 들어 자기존재를 증명하려는 고코로 지식인들의 심리가 읽힌다.

개인의 자유는 교양주의의 핵심이었다. 사회과학자들이 정치적 자유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교양주의자들이 추구한 개인의 자유는 권력에 저항하는 자유(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소극적 자유)였다. 소극적 자유 개념은 현실과 실천으로부터 초월하려는, 역사를 중시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려는 초월주의적 성향의 소산이다. 스즈키의 경우 올드 리버럴리스트들의 초월주의적 경향은 “이상주의의 정신계보” 위에서 “진선미”를 사회성이나 역사성을 초월하여 영원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역사의 수렁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정신으로 이해하였다.⁵⁷⁾ 교양주의의 역사초월적 관점에서는, 강력한 이념으로 무장하지 않는 한, “설사 반대하고 싶다고 생각했어도 반대할 확실한 근거를 갖지 못했다. 단지 농후한 의심을 품으면서 끌려들어갔다”⁵⁸⁾는 심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농후한 의심을 품으면서 끌려들어갔다”는 자각은 전시체제를 벗어났을 때, 전후의 맥락에서 이상주의가 붕괴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전쟁에 초연한 것이 유일한 저항일 수도 있다는 변호도 가능하지만,⁵⁹⁾ 초월적 저항은 개인의 소극적 자유일 뿐 역사적인 것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코로』 창간 10년의 시점에서 벌어진, 고코로 지식인들의 사상적 지형을 둘러싼 비판과 반비판의 풍경은 전후일본에서의 진보적 지식과 보수적 지식의 대립구도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 준다. 사회과학자와 고코로 그룹은 비판과 반비판의 지상 논쟁을 통해 현상인식의 방법과 지식의 문제를 둘러싼 사회과학과 교

57) 스즈키 발언, 『座談會』, 42~43쪽.

58) 다케야마의 발언, 『座談會』.

59) 스즈키의 발언, 『座談會』, 42~43쪽. 스즈키는 고코로 2세대로서 1세대의 “초역사의 입장”과 달리 “역사의 입장”을 제시한다. 그는 2세대는 역사를 초월한 영원의 차원에서 바라볼 여유가 없으며 전쟁과 같은 역사를 자신의 생활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역사의 입장”에서 보수주의를 “뷰로크라시를 포함해 넓은 의미에서 전체주의화하는 세계의 경향에 대해 저항하는 정신”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저항이 “개인을 살린다”는 1세대의 정신을 관철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양주의의 사상적 차이를 확연히 드러냈다. 사상의 과학 그룹은 고코로 그룹을 동
 일성·경향성으로 파악했지만, 고코로 그룹은 자신들의 차이성·개별성에 주목했
 다.⁶⁰⁾ 논쟁을 지켜본 평론가 가와카미 데쓰타로(河上徹太郎)는 사상의 과학 지식
 인들이 “소세키의 일본적 유교정신과 칸트파의 이상주의 철학을 인용하면서 조
 리정연하게 설명하”지만, 올드 리버럴리스트의 체계에 대한 “정밀한 분류”에 머
 물렸고 올드 리버럴리스트들의 “살았던 까닭”을 간과했다고 비평하는 한편, 사회
 과학자들의 “조리정연함”에서 “결석 인민재판의 차가움”을 느꼈다는 인상을 피
 려했다.⁶¹⁾ 사회과학자들의 ‘과학’과 교양주의자들의 ‘인간’을 대비한 것이라 하겠
 다. 고코로 그룹의 좌담회는 사회과학자들의 논리적 분석과는 전혀 반대로 감성
 적 반발이 뜨겁게 표출된 방담에 가까웠다.

사회과학자와 교양주의자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와 ‘삶’의 간극은 사회과학
 과 인문학의 거리로 치환될 수도 있다. ‘사회과학’은 『세계』로 대표되는 진보주의
 와는 구분된다. 사상의 과학 지식인들은 고코로 보수주의뿐 아니라 진보주의자
 와 좌익운동도 함께 비판했다. 고코로 지식인들도 사회과학자들이 “미국적 실용
 주의”에 기초한다고 보았다.⁶²⁾ 가와카미의 관찰에 따르면, 당시 ‘사회과학’은 심
 리학이나 사회심리학의 성격이 강했다. “심리학의 진보와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로 “인간 영위의 가치평가”에 관해 전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맑스 사회과학과 구
 별되는 새로운 사회과학(사회심리학)이 출현했고, “문예작품의 구체성의 세계”
 (인문학)와 대등하게 발언할 정도로 성장해 있었다.⁶³⁾ 지상논쟁과 가와카미의 논
 평은 진보적인 ‘새로운 사회과학’이 ‘낡은 사회과학’(맑시즘)에서 분화되고, 진보
 적 사회과학과 보수적 문화주의가 대립하는 지식사회가 형성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고코로 지식인들은 사회과학의 가치는 인정했지만, 사회과학이 “인간 존재

60) 山田宗睦, 「リベラルな保守派「心」グループ」, 285쪽,

61) 河上徹太郎, 『日本のアウトサイダー』, 東京: 中央公論社, 1978, 20~21쪽. 원저는 1959년 발행.

62) 「座談会」, 33쪽.

63) 河上徹太郎, 『日本のアウトサイダー』, 20~21쪽. 다만 가와카미는 ‘(사상의) 마음’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사상의) 과학’
 을 바라보았다. 이는 인간·인격·인간미를 중시한 고코로 지식인들의 관점과 통한다. 가와카미는 전후일본의 ‘사회과
 학’이 “문예작품의 구체성의 세계에 평행해서 발언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즉 ‘과학’이 ‘마음’을 압도하기 시작한 콘텍
 스트에서 ‘마음’을 붙잡고자 했다.

의 전부를 해결하는 전체적 세계관”이 되는 것을 우려했다. 사회과학자들에게는 사회과학의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의지가 없다고 보았다.⁶⁴⁾

토론회(보수주의 비판)와 좌담회(사회과학 비판)라는 형식과 담화의 방식은 어쩌면 사회과학자와 교양주의자의 지적 분위기를 대변할지도 모른다. 한편은 준비된 발제와 토론이었고 다른 한편은 방담에 가까웠기에 주장의 논리성과 깊이에는 차이가 있었고 공정한 논쟁은 아니었다. 고코로 지식인들의 사상 내용은 동인지 『고코로』의 텍스트를 통해 소묘할 필요가 있다.

5. 사상으로서의 『고코로』: 고코로 보수주의

1) 삶과 의지

변혁기에는 현실과 이상, 실제와 이념, 문화와 정치를 둘러싼 대립된 사유들이 교착한다. 패전 및 점령의 현실과 민주화 개혁에 수반된 신일본 건설에 대한 희망의 사이에서, 문화주의(교양주의)에 기초한 보수와 정치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의 사이에서, 일상적 삶과 공동체를 둘러싼 사유들이 제시되었다. 생활을 중시하는 교양주의와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주의에 관한 사유들이 표출되고 새로운 일본의 국가상이 진보의 경우 인권과 민주주의 제도에 기초한 민주국가였다면, 보수의 경우는 개인의 자유와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국가였다.

고코로 보수주의자들에게 일상적 삶, 즉 생활은 사유의 기초였다. 지식과 이념, 개성과 인격, 개체와 전체, 민주주의와 국가 등에 관한 사유를 이루는 개념들과 인간관·가치관·정치관은 ‘삶’ 혹은 ‘생활’로 환원된다. 그들에게 ‘생활’은 이상과 현실, 이념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좁히거나 메우는 근거였다. ‘생활’은 추상적 논리나 이념으로 규정되는 정치적 삶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영위되는 일상적 삶이었다.

일상적 삶은 민예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의 생활개념에서 잘 드러난다.

64) 竹山の 발언, 『座談會』, 37~38쪽.

아나기는 ‘미’와 ‘경제’를 “문화문제”로서 논한다.⁶⁵⁾ “아름다운 것”의 제작은 생산인 한 경제현상이며, 미와 경제를 결합하는 힘은 “쓸모”(用)에 있다. 쓸모를 다할 때 사물은 아름다우며, 생활을 떠나서는 공허한 것이 된다. 효용은 모두에 쓸모있을 때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생활을 지향하는 민예의 본질은 사회성에 있지 개인성에 있지 않다.⁶⁶⁾ 여기서 문화는 생활미와 일상적 효용성을 추구하는 미의식과 실용주의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아나기 민예론은 생활과 효용을 중시하는 교양주의의 한 단면을 드러내며, 교양주의의 전전과 전후의 연속성을 보여 준다.

다만 아나기의 문화의식에 나타난 생활개념에는 새로운 맥락은 고려되어 있지 않다. 다이쇼 교양주의 시대에 형성된 문화감각이 전후체제를 경험하기 이전의 맥락에서 표출된 것이다. 이상이나 이념이 강하게 의식되는 맥락—신일본 건설을 강하게 의식하는 맥락—에서는 생활개념은 이상이나 이념에 영향받게 마련이다. 전후 맥락의 정치안보 측면을 의식했던 아베 요시시게는 “우리들의 결심과 우리들의 행위로 좌우할 수 있는, 즉 자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희망의 세계”를 상상했을 때,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의지와 이상”이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는 원동력으로서 강하게 의식된다.⁶⁷⁾ 아베가 제시한 신일본 건설의 요건은 애국심, 평화주의, 민주주의 정신, 천황에의 경의와 같은 이념이었다. 다나카 고타로는 이성을 갖춘 인간으로서 생활에서 모순을 없애고 생활에 수미일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한 이상이나 사상의 정합성을 주장한다.⁶⁸⁾

어쨌든 신일본 건설의 맥락에서 삶은 과거만을 보수할 수는 없고 미래를 지향해야만 한다. 현재의 삶을 위해서는 진보와 공유하는 맥락을 상정해야 하며, 미래의 삶에 대한 낙관적 희망 혹은 생의 의지를 상정해야 한다. 여기서 보수의 이

65) 柳宗悦, 『美と經濟(上)』(中)·(下), 『心』(1948년 7月号·8月号·9月号).

66) 柳宗悦, 『美と經濟(中)』, 『心』 1948년 8月号, 40~43쪽.

67) 安倍能成, 『終戦第四周年に』, 『心』 1948년 10月号, 2~3쪽.

68) 田中耕太郎, 『世界觀の統一性』, 『心』 1949년 3月号, 3쪽. 다나카는 공산주의의 모순을 의식하고 있었다. “한쪽으로 는 기독교를 믿으면서 학문상으로는 맑스주의를 긍정하는”, “국제적으로는 평화주의를 주장하면서 국내적으로는 계급 투쟁과 민족주의를 고양하는” “세계관적 모순”을 지적한다.

념과 지식은 생의 의지를 미래에 투사하게 된다. 심리학자 다카하시 조(高橋穰)는 삶과 이념과 주체의 상관성에 대해 말한다. 이념은 창조적 힘의 근원으로서 실천의 세계에서 현실적 힘으로 다가오며, 삶은 이념의 실천적 실재성이다. 이념의 실천적 실재성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만 실천적 진리는 파악되고, 이념은 삶의 논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을 통해 실재하며 실천적 진리만이 존재한다. 실천적 진리는 객관적 진리-과학적 진리가 아니라 삶의 의지를 통해 존재하는 주관적 진리다. 사실은 주체의 인식활동을 통해 존재한다. 주체는 사실에 즉하지만 사실을 포괄함으로써 존재하며, 진정한 생명은 주체의 활동으로만 존립한다.⁶⁹⁾

미래를 향한 삶의 의지가 실천적 과거의 전승이 아니라 미래의 현재화를 상징하며, 진리는 의지를 투사하는, 즉 생의 의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진리로서 성립한다는 다카하시의 관점은 고코로 보수주의의 중요한 일면을 보여 준다. 주체는 객관적 진리에의 자각적 몰입이 아니라 주관적 진리의 자각적 체험에서 성립한다. 주관적 진리의 구성이 삶의 의지를 표현하며, 이 과정에서 주체는 자각된다. 과학적(객관적) 진리는 부정되고 생명의 자각에 의한 주관적(주체적) 진리를 드러내는 의지의 실현과정이 ‘삶’으로 인식된다. 개개인들의 ‘체험’과 이를 통한 ‘생명의 자각’은 진리 성립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체험의 이해나 납득은 깊이만 행동에 의한 검증은 없다”⁷⁰⁾는 사회과학자의 비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 물론 “행동에 의한 검증”이란 방식은 고코로 교양주의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아니었다.

주관주의가 지나치면 종교적 자각을 통해 인간과 삶을 파악하는 사유도 나타난다. 불교학자 스즈키 다이세쓰(鈴木大拙)는 과학기술, 집단생활, 경제생활, 물질적 사색(과학적 사고)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을 “추상적”·“이성적”으로 보는 과학적 사고방식에서는 “살아 있는 구체성의 인간”이 “죽어 간다”고 지적하면서

69) 高橋穰, 「二つの心理—科学的真理と實踐の真理」, 『心』 1953년 12月号, 21~26쪽. 그는 “산다는 것은 언제나 미래에 사는 것, 즉 현재 속에 미래를 살리는 것이다. 생명이란 의지 실현의 과정이다. 의지의 실현이란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며, 현재에 없는 것을 미래에 갖게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창조하는 것이다. 창조가 없는 생은 생명이 없는 생이며 진정한 생일 수 없다”고 말한다.

70) 구노의 발언, 『戦後日本の思想』.

“인간이 인간인 바”를 “영성적 자각”에서 찾는다.⁷¹⁾ 이러한 종교적 관점은 극단적 사례이지만, “과학은 진보해도, 우주가 확대해도, 인간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 과학은 비약하고 인간을 둘러싼 조건이 일변해도, 인간이 가야 할 길에는 이것에 지배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⁷²⁾는 인간관은 고코로 교양주의자들에게 공유된 것이었다.

고코로 보수주의자들에게 미래는 진보주의자들처럼 절대 준거를 향해 지향하는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현재적 자각의 축적들이 만들어 내는 개연성의 세계였다. 현재를 과거에 연속하는 과거의 축적물로 보고 미래가 현재에 의해 구성된다면, 미래는 과거와 연결되는 셈이다. 주체적 진리에서 생명의 의의를 깨닫는 주관주의는 삶의 의지가 작동해야 한다고 믿는 맥락, 즉 ‘신일본 건설’의 의지가 고양된 맥락에서 표출되었다.

2) 개체와 전체

다카하시에게 주관적 진리를 드러내는 의지의 실현, 혹은 주관을 통해 사실을 인정하는 주체의 활동은 자기 존재를 인격으로서 자각하는 행위였다. 인격으로서의 자각은 독자성의 자각을, 독자성의 자각은 개성의 자각을 도출한다. 개성의 자각은 개성의 존엄의 자각이다. 또한 자기가 개성자임을 자각하는 것은 타인의 개성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타자의 개성의 존엄을 인식하는 것이 된다. 인격이 개성임을 인식할 때 개성의 차별을 인식하게 되고, 인격의 평등과 차별을 인식하게 된다.⁷³⁾ 다카하시의 사랑, 성실, 정의라는 보편적 실천이념을 제시하는데, 이 실천이념은 논리적 추상성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개성(인격) 간의 구체적인 상호적(사회적)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개성(인격)의 자각이 타자와 세계에 대한 자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개인과 인간사회의 존재를 긍정하기 위한 가치로 상정된 것이다.

71) 鈴木大拙, 『日本的靈性的なるもの』, 『心』創刊号, 5쪽.

72) 安倍能成, 『人工衛星と平和』, 『心』1958年1月号, 3쪽.

73) 高橋穰, 『二つの心理—科学的真理と實踐的真理』, 『心』1953年12月号, 26쪽.

철학적·인식론적 논의를 떠나 개인이 민주주의와 민주헌법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적 맥락에서 개성과 인격을 보는 견해도 있다. 다나카 고타로는 개성과 인격을 동일시한 다카하시와 달리 개성과 인격을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개성은 자연적 소질을 뜻하는 자연개념이지만, 인격은 정신세계에 속하는 윤리적·가치적 개념이다. 자연개념인 개성은 가치개념인 인격의 지휘를 받으며 인격에 의해 완성된다. 개성은 정립된 목적을 지향하는 자유의지로써 그 목적에 봉사하며, 인격은 자유를 예정한다. 자연개념인 개성에 완성은 없고 준비 강약만 있지만, 윤리개념인 인격에는 완성이 존재한다.⁷⁴⁾ 여기서 개인은 개성이 아니라 인간이다. 자연적 소질인 개성의 신장은 물질적·동물적 인간 양성에 불과하므로, 개인은 “본능과 능력의 총화”인 개성이 아니라 개성의 차이를 초월하는 인간 자체여야 한다.⁷⁵⁾

다나카의 논의에서는, 독자성의 자각, 즉 개성의 자각을 통해 주체의 성립을 확인한 다카하시와 달리, 자연개념인 개성과 가치개념인 인격의 분열로 인해 개성에서 인격을 도출해 낼 여지는 없다. 인격의 완성은 개인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매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나카는 매개물로서 “협동체”(Gemeinschaft)를 제시한다. 그가 보기에, 개성을 갖춘 인간은 자족완료체지만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포괄하는 협동체에 소속된다. 개인과 협동체는 서로 공헌하는 관계다. 협동체를 떠나 개인의 발전과 개성의 발휘는 생각할 수 없고, 개인과 개성을 도외시한 채 협동체를 관념할 수는 없다. 협동체는 개인의 다양한 개성으로 풍부해지며, 개인들은 분업협력 관계에 있다. 협동체의 도덕·습속·과학·예술·경제는 ‘교양’과 ‘문화’를 구성하며, 이러한 협동체의 교양과 문화, 그리고 객관적 정신인 제도는 이성과 가치판단에 이끌리는 개성의 종합으로서 출생에 의해 습득되고 승계된다. “개성의 함양은 협동체 관념에 의해 한계지어진다”. 개인의 개성과 인격은 공동체의 “단체적 가치”, 즉 “공동복지”(bonum commune)를 통해 완성된다.⁷⁶⁾

개성과 협동체의 상호구성적 존재를 상정하는 다나카의 발상은 개성을 자연

74) 田中耕太郎, 「個性と人格」, 『心』 1958년 1月号, 20~21쪽.

75) 田中耕太郎, 「個性と人格」, 17~18쪽. 다나카는 “모든 국민은 법 아래에서 평등하다”라는 명제를 인간이 법학적 의미에서 “인격”(Persönlichkeit)을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개념, 인격을 가치개념으로 구분하면서 개인의 인격을 내세웠던 것과 어긋난다. 앞의 진술에서는 개성과 인격을 자유의지를 내장하거나 자유를 예정하는 것이었지만, 뒤의 진술에서는 공동체에 의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니카는 일본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나오는 개인의 자율성을 적극 모색하면서도 개인을 공동체로 회수시키고 있다. 그가 개인-국가 관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자유의 남용과 무질서를 비판하고 도덕교육을 강조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⁷⁷⁾

아베 요시시게의 경우는 개체와 협동체의 상호구성적 존재방식보다는 개체(개인)가 전체를 구성하는 민주적 방식과 소수가 다수를 훼손하는 자본주의 방식에 주목했다. 아베는 개인의 차이를 넘어 양심(conscience)을 매개로 개인의 “가장 깊은 개인적 경험”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con(共)하게 보편적으로 알고 느끼고 결의”하는 것을 다수결 원리로 이해한다. 아울러 개체를 “무한정의 전체”(indefinite whole), 즉 “무”(無)에 연결시키는 “개즉전”(個即全)의 동양적 사유를 동원한다. 니시다 기타로의 영향이 엿보이지만, 아베의 “개즉전”은 개체 속에 전체를 인정할 뿐 아니라 개체를 모아 전체를 “조직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녔다. 민중이 개체의 자각을 통해 전체에 참여할 개인의식과 사회의식을 갖는 민주주의 사회를 상정해서였다. 소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다수의 그것들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려면 민중과 노동자도 정치와 경영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이와 연관된다.⁷⁸⁾ 개체는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자각을 통해 전체를 구성한다는 논리는 자유 개념과도 결부되는 것이었다.

3) 자유와 질서

‘자유’는 고코로 보수주의의 정신을 보여주는 핵심개념이다.⁷⁹⁾ 자유론은 보수주의 교양인들의 핵심 담론이었다. 아베 요시시게는 “자유”의 요구는 인류가 문화를

76) 田中耕太郎, 「個性と人格」, 19~21쪽.

77) 田中耕太郎, 「個性と人格」, 16쪽.

78) 安倍能成, 「平和と自由についてアメリカ人諸君に訴ふ」, 『心』 1953년 4月号, 9~11쪽.

79) ‘자유’는 메이지 변혁기와 마찬가지로 현대일본이 새롭게 규정되는 때에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中谷宇吉郎·桑原武夫 対談, 「自由過剰の国, 日本」(『文藝春秋』 1956年)은 자유논쟁의 일면을 보여 준다.

갖기 시작한 이래 항상 있었던 것이며, 인간의 본질은 자유에 있고, 자유가 없는 곳에 인간은 없고, 인간생활의 특질인 문화는 없다”고 말한다.⁸⁰⁾ 다나가 고타로는 자유를 인간과 사회 문제의 통일적 해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치·경제·법·학문·예술 등을 횡단하는 최대공약수적 문제”로 보았다.⁸¹⁾ 교양주의자들이 전체주의(공산주의)에 대항하여 개인의 자유의지를 적극 모색할 때 개인의 자유는 무한히 확장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진보주의자들이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고 사회질서의 ‘혼란’이 우려되는 맥락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도 공존한다. 이는 자유를 보장하려는 원리적 관점과 자유를 제한하려는 상황적 관점의 공존을 암시한다.

아베는 출판물이 범람하고 저널리즘이 횡행하는 가운데 “세력 있는 것, 신기한 것, 이른바 진보적인 것”을 추종하고 긍정해 버리는, “자신에 근거해서 이를 부정하는 견식과 용기”를 결여한 전후 상황을 상정하면서 자유를 말한다. 그는 사회적 조건이 자유를 구속하거나 규정한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했다. 그에 따르면, 자유는 소여의 상태에서 자기 의지에 의한 요구를 자각하고 실현하려는 정신이다. 개인의 자유는 주관적-주체적이다. 자유는 타인의 주장이나 사회의 경향을 부정하는 것일 수 있지만, “자신이 없이는 자유는 없고 자신으로부터 발하지 않는 자유는 없”다. 자기의 부정을 통해 타인을 인정해야 진정한 자유이다. “자신에 충실할수록, 통절한 의지와 요구를 가질수록, 자신뿐 아니라 타인도 자유로 삼는 바, 만인이 똑같이 자유로 삼는 바가 된다. 자유는 자신에서 발하여 자신을 넘어야 한다.” 관용(tolerance)도 타자와의 타협이 아니라 자기 부정을 통해 타자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⁸²⁾ 타자와의 투쟁적 불관용을 통해 관용이 나온다는 사회과학자들의 관용 개념과는 다르다. 아베의 이러한 자유론에서 “개인의 존중이 없는 사회적 협동은 공허한 것”⁸³⁾이라는 발상이 나온

80) 安倍能成, 「平和と自由についてアメリカ人諸君に訴ふ」, 8쪽.

81) 田中耕太郎, 「自由とは何か」, 『心』 1953년 9月号, 12쪽.

82) 安倍能成, 「自由と平等」, 『心』 1957년 2月号, 9~10쪽.

83) 安倍能成, 「終戦第四周年に」, 『心』 1948년 10月号, 4쪽.

다. 제도나 조직이 자유를 규정하긴 해도 거기에 혼을 불어넣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도덕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자유의 요구에서 비롯되며 책임관념을 부여한다. 개인적 자유를 자의적 기분이나 자연적 욕망, 만인 대 만인의 투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개인적 자유를 규정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로서의 정의·진리가 아니라 반성을 통한 평화와 이성에 의한 통어(control)다.⁸⁴⁾

다나가 고타로는 이러한 아베와 달랐다.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구성적 관계를 상정한 다나가는 “도덕적·사회적·사상적·문화적 혼란” 속에서 자유가 오해·오용되고 있고, 전후 사회질서의 혼란과 도덕의 쇠퇴가 “자유와 방자의 혼동, 소여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의 남용”에 귀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⁸⁵⁾ 다나가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했고, ‘관용’을 자유의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다. 국가는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만 정해야 하고, 모든 학문과 종교에 관용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은 공동생활을 영위하므로 개인의 자유는 제한된다고 보았다. 일상생활은 절대적 객관적 가치가 정점에 있는 계층적 가치질서를 전제로 하므로 인간의 자유도 이러한 질서 속에서 기능하며, ‘인격’은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이러한 질서(평화) 속에서 “신의 세계계획”을 실현함으로써 이룩된다는 생각이었다. 정치적 자유는 절대적 가치의 질서에 의존하므로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정치의 목적이 질서유지, 국민경제 생활의 안정 향상, 문화발전에 있다는 다나카의 정치관과 무관하지 않은 자유관이 었다.

아베는 개인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반성을 통한 평화와 이성에 의한 통제라는 자유의 방식은 정의와 진리라는 절대적 가치를 내세운 정치적 자유로 진화할 여지를 억제한다. 다나카의 경우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의 계층적 가치질서에 제한되는 것이었다. 공동체 가치를 절대 준거로 삼긴, 반성적 성찰과 이성의

84) 安倍能成, 「平和と自由についてアメリカ人諸君に訴ふ」, 『心』 1953년 4月号, 8~10쪽. 자유와 책임에 관해서는 창간호에서 “자유가 있는 곳에만 책임이 있고, 자유가 증대하면 책임도 증대한다…… 자유의 날개는 책임의 하중을 나눌 수 있어야 온전한 것이다”(安倍能成, 「卒業式の辭」, 『心』 創刊号, 36~37쪽)라고 말하고 있다.

85) 田中耕太郎, 「自由とは何か」, 11~18쪽.

통제를 동원하건, 자유는 질서에 구속된다. 고코로 보수주의자들에게 개인은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인 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물리학자 나카야 우키치로(中谷宇吉郎)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집단생활 속의 개인의 자유”, 즉 “마이너스의 리버티”이다. 자유는 법으로 정의되고 지켜지는 것이므로 질서와 모순되지 않는다. 질서를 세우기 위한 제한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자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⁸⁶⁾

4) 전쟁과 평화

‘전쟁’과 ‘평화’는 패전과 냉전의 맥락에 대응하는 전후지식인들의 정치이념과 현실의식을 가장 잘 함축한 언어다. 패전은 평화쟁점을 부상시켰고, 평화헌법은 평화의 의미를 둘러싼 긴장을 자아냈다. 냉전은 이념상의 대립과 대결적 외교정책을 자극하면서 태평양전쟁 이후의 새로운 전쟁의 개연성에 대처하는 평화의 논리와 심리를 산출했다. 평화담론은 새로운 국가건설이란 과제와 맞물려 있었다. 진보주의자들이 냉전‘이념’에 대항하여 ‘평화’이념으로 담론을 구성했다면, 고코로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세계평화와 일본국가의 존재양태에 관한 언설을 만들어 냈다.

아베의 평화론은 진보지식인과 보수지식인의 사이에 위치한다. 아베는 “평화는 전쟁의 반대”이며 “무장적 평화”(군비)는 전쟁을 없애지 못하고 “무장적 전쟁”만을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군비철폐를 주장했다.⁸⁷⁾ 인간의 이상은 평화에 있으며 역사의 본질은 전쟁이 아니라 문화에 있다는 발언⁸⁸⁾에서 보듯이 평화주의에 입각한 전쟁-평화관이었다. 하지만 신일본을 건설하려는 실천적 관심의 소산이기도 했다. 그는 “평화주의”를 국제번영과 국제정의를 고양시키는 국제협력뿐 아니라, 국가 애고이즘에 대한 일정한 통어와 신일본의 재건을 위한 원칙으로 보았다.⁸⁹⁾ 평화헌법은 세계평화와 일본재건을 위한 계기, 즉 전쟁을 통한 팽창의 유

86) 中谷宇吉郎, 『自由と進歩』, 『心』1957年 1月号, 8~9쪽.

87) 安倍能成, 『平和と自由についてアメリカ人諸君に訴ふ』, 3~7쪽.

88) 安倍能成, 『終戦第四周年に』, 3~4쪽.

혹을 끊어 내고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가치전환”과 “일본갱생”의 계기로 여겼다. 군비를 뺀 자가 “싸울 수 없다는 현실”에서 나아가 “결코 싸우지 않는다는 의지”의 확립이 패전일본의 길이라 믿었고, 이러한 입장에서 평화헌법은 강제된 것이긴 해도 “일본국민의 책임에 있어서 승인”된 것이라 생각했으며,⁹⁰⁾ “일본국민의 총의”에서 나온 것으로 보았다.⁹¹⁾

아베의 평화론은 진보의 평화론과 많이 닮아 있다. 평화문제담화회에는 올드리버럴리스트와 신세대 진보학자가 공존했지만, 대부분 고코로 지식인들은 진보 지식인들의 평화론이나 전면강화론에 동조하지 않았다. 아베는 평화문제담화회의 좌장을 맡아 재군비 반대, 중립, 군사기지화 반대의 의견에는 동조했지만, 담화회의 진보주의적 성향과는 거리를 두었다. 미국에 우호적이었고 소련의 평화공세와 일본공산당의 평화론을 불신했다. 평화주의가 절대이념이 아니라 실천이념으로 기능할 때 평화는 현실의 세력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베가 국내외의 복잡한 현실에 “곤혹을 느끼면서” 기지제공, 중립 불허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양보”를 한 것은 진보주의자들의 이념적 평화론과는 구별되는, 보수주의자의 면목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산국가와의 전쟁이나 적대행위를 피하면서 “차가운 전쟁을 조금이라도 따뜻한 평화로 바꾸는 노력”을 요구하고 내란방지·치안유지 등 국내경찰 임무로 한정시키는 조건으로 자위대를 용인한 것도 보수지식인의 평화관을 보여 준다.⁹²⁾ 아베가 평화주의, 민주주의 정신과 더불어 신일본건설의 원리로 제시한 초계급적인 애국심과, “일본국민의 상징이며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이자 “국민의 도의적 정신적 중심”인 천황에 대한 인간적 경애⁹³⁾는 보수주의 평화론의 또다른 면목을 보여 준다. 진보적(이상주의적) 평화관과 보수적(현실주의적) 평화관이 결합된 평화론이었다. 덧붙이자면 “애국”과 “애인류”

89) 安倍能成, 「平和と自由についてアメリカ人諸君に訴ふ」, 8~10쪽.

90) 安倍能成, 「平和と自由についてアメリカ人諸君に訴ふ」, 3~4쪽. 신헌법의 평화조항은 세계평화 달성의 계기만 된다면 패전의 희생이 오히려 값싸다고까지 말할 정도였다(安倍能成, 「終戦第四周年に」, 3~4쪽).

91) 安倍能成, 「終戦第四周年に」, 「心」1948년 10月号, 2~4쪽.

92) 安倍能成, 「平和と自由についてアメリカ人諸君に訴ふ」, 4~7쪽.

93) 安倍能成, 「終戦第四周年に」, 2~4쪽; 安倍能成, 「卒業式の辞」, 37쪽.

의 공존에 기초한 세계평화에 공헌하려면 일본을 “아름다운 나라”, “인간다운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무사노코지 사네아쓰의 보수적 평화론도 있었다.⁹⁴⁾

고코로 보수주의자들은 평화와 전쟁의 개념을 인간과 생명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이해했다. 삶의 의지를 투영시켜 평화를 구현하려는 평화관에서는 인간의 존재양식이 더 중시된다. 스즈키 다이세쓰는 평화문제를 종교적 심성의 문제로 환원시켰다. 평화는 여러 형태의 집단 간에 발생하는 무력적 투쟁의 종식이며, 평화의 실현은 집단 간 투쟁의 종식이 아니라 집단을 형성하는 개별 인간의 종교적 태도에서 찾아졌다. 평화의 실현은 종교적 훈련을 통한 영성적 자각에서 가능하다는 말이다.⁹⁵⁾ 심성을 중시하는 고코로 보수주의자들의 평화의식의 일면을 보여준다.

인간과 생명을 중시하는 평화관은 나가요 요시로에게서 잘 드러난다. 나가요는 인류가 “원시적 비문(非文)의 상태”에 있다고 보고 단지 “평화라는 상태, 전쟁이 없다는 상태”를 “이상적인 지복(至福)의 상태”로 여기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비문’의 현실과 ‘평화’의 이상이 분절되고 전쟁의 부재를 평화로 보는 관점이 만연한 것을 걱정했다. 나가요는 인간과 생명에 기초하여 평화에 접근한다. 그는 인간과 생명에 내재된 투쟁성을 부정하지 않았고, 전쟁을 개인 내부의 투쟁이 계급 간, 국가 간 아욕(我慾)의 투쟁으로 확대된 것이라 보았다. 평화는 전쟁포기 선언이나 유네스코 참가 등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의 향상”을 통해 “그 결과로서 저절로 온다”고 생각했다. 실질의 향상이란 “생명 자체의 적극적 해결” 혹은 “쟁투의 고로(苦勞)”를 통한 “강한 생성”을 뜻한다. 평화는 “안면(安眠)하는 돼지 같은 평안”이나 전쟁 부정에서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의 향상을 통해 도달될 것이었다.⁹⁶⁾ 인간의 투쟁적 생의 의지는 논리적 추상으로서의 평화개념을 실천적 차원에서 극복할 여지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투쟁적 생명관에서 전쟁

94) 무사노코지는 재무장을 “인간다운 나라를 만드는 애국대”, “신애국군”으로 간주했다. 武者小路實篤, 「再軍備私感」, 『心』 1953년 8月号, 13쪽.

95) 鈴木大拙, 「平和の実現につきて」, 『心』 1949년 5月号, 2쪽, 7~8쪽.

96) 長與善郎, 「本物であること」, 『心』 1948년 12月号, 2~4쪽.

의 가능성을 잃어 낼 수도 있다. 고코로 지식인들의 평화론에서 한발 나아간 견해 일 수도 있고, 고코로 평화론에 함축된 관점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다.

6. 맺음말

『고코로』는 패전과 냉전 공간에서 민주주의와 안보 쟁점을 둘러싸고 이상주의적 진보주의와 과학주의(사회과학)에 대응했던 보수지식인들이 보수주의적 견해를 표출한 장이었다. 고코로 보수주의는 개인의 일상생활, 개성과 인격, 공동체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주의와, 문화예술의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교양주의에 의해 지탱되었다. 문화주의는 고코로 보수주의를 문화적 보수주의로 규정하는 요소였고, 교양주의는 고코로 보수주의가 배타적 내셔널리즘으로 전개될 여지를 제어하는 요소였다. 교양주의와 문화주의는 리버럴한 문화적 보수주의자들에게 새로운 사회과학과 체제순응적인 정치적 보수와는 다른 지적 사유의 여지를 제공했다.

교양주의에 기초한 문화적 보수주의는 정치이념을 배제하고 생활감각에서 정치를 구성하려 한 온건한 보수 혹은 일상적 보수였다. 이념으로 생활을 규정하려는 성향이 강했던 진보주의자나 우파 정치가들의 정치적 보수와는 대비되는 사유였다. 이러한 보수적 사유는 온건성과 유연성에서 비롯한 애매성 때문에 조직과 운동의 동력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진보와 과학에 항의할 수는 있었지만, 생활과 소극적 자유에 기초한 신념은 이들과 적극적으로 투쟁할 의지를 허용하지 않았다. 동심회와 생성회라는 동인집단은 지적 네트워크였지 이념투쟁을 벌이는 조직적 운동체는 아니었다. 55년체제 성립 이후 다케야마 미치오와 교토학파의 니시타니 게이지(西谷啓治), 스즈키 시게타카가 조우하면서 형성한 2세대 고코로 지식인들은 투쟁적 반진보주의의 자세를 보였지만,⁹⁷⁾ 정치적 초월주의와 문화주의를 압도하지는 못했다.

97) 山田宗睦, 「リベラルな保守派「心」グループ」, 290쪽.

교양주의와 문화주의는 정치적·경제적 조건을 초월한 견고한 이념일 수 있을까. 보수주의는 낡은 것의 토대 위에 새로운 것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유이다. 혁명을 부정하고 개량을 옹호하는 이념이다. 이론에 따른 혁신보다 구체적인 체험에 기초한 변화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다.⁹⁸⁾ 혹은 “여러 조건의 변화에 의해 모습이 바뀔지라도 그 변화 뒤에 변치 않는 본질이 있다는 기분”⁹⁹⁾이다. “변화 뒤에 변치 않는 본질이 있다는 기분”, 불변의 영원한 가치를 인정하고 싶은 보수의 감각은 고코로 보수주의자들에게 자기 정당화의 신념을 제공했다. ‘주의’(ism)가 아니라 ‘기분’이라면 견고하기 어려울 것이다. 생의 의지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불변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때 그 과정은 언제나 가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이쇼 민본주의의 유산이었던 서구의 인격주의와 일본문화의 교양주의에서 배양된,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감각과 인간을 중시하는 신념은 고코로 보수주의자들의 존재 이유였지만, 올드 리버럴리스트의 세대가 사라질 때 함께 소멸될 운명이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상업주의에 의한 ‘인간의 추락’이 깊어질수록 일상적 보수는 ‘교양’을 탈색시키지 않을 수 없다. 1980년대 경제대국화와 더불어 한 세대에 걸친 『고코로』의 ‘생명의 의지’가 소멸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교양’이 사라진 뒤 보수는 ‘이념’으로 무장하고 ‘전후체제’에 대한 이념적 저항을 시도한다. 정치적 자유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민주에 대한 반진보주의적 재규정이 이루어진다. ‘싸우는 보수’의 출현이다.

교양주의나 문화주의가 ‘기분’을 넘어 맥락을 초월하여 살아남을 수 있다면, 개인의 구체적 삶의 모습에서 개체와 전체의 존재방식을 조명하는 관점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개체와 전체가 맥락에 따라 유동하는 것을 억지하는—진보주의에서 설정한 객관적·과학적 진리와 같은—어떤 장치를 주목할 수 있다. 공동체의 절대적 가치를 상정하는 것은 손쉽고 조악한 방법이다. 개체의 삶과 가치에 치중했던 아베의 다음 진술에서 개체의 구체적 삶과 전체의 보편적 삶을 연결해

98) 이에 관해서는 로버트 니스벳, 『보수주의』(강정인 옮김, 이후, 2007)를 참조할 것.

99) 아베의 발언, 『座談會』, 36쪽.

주는 심미적 가치의 존재를 떠올릴 수 있다. 리버럴 보수주의의 심미적 성향은 중요한 성찰대상이 된다.

진이라는 것, 선이란 것, 미라는 것을 자신의 생활 속에 실현하는 것이 인간의 수행이지만, 동시에 이렇게 체득한 진선미는 나의 것이 아니라 만인에 통하는 보편의 것이다. 진정 진선미에 나아가 여기서 기쁨을 얻은 자는 남이 이것을 성취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남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실로 고귀한 정신이고, 이 정신만큼 금일의 일본에 필요한 것은 없다.…… 그것은 특권적 귀족주의가 아니라 만인을 높이고자 하는 건전한 민주주의의 정신에도 맞는 것이다.¹⁰⁰⁾

100) 安倍能成, 「卒業式の辞」, 36쪽.

중국경제의 부상과 일중 경제관계 | 김규판

투고일자: 2011년 12월 10일 | 심사완료일자: 2011년 12월 20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1월 26일

본고는 2000년대 이후 중국경제의 위상이 G-2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고,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리스크와 중국위협론을 주로 경제 측면에서 검증하고 있다. 중국리스크란 중국이 지금과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인데, 본고는 현재 중국기업의 기술수준이나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농촌인구의 도시유입 한계에 따른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면, 중국이 '중진국의 덩'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다. 그런데 중국의 부상은 일본에게 군사적 측면은 물론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불안요소라는 중국위협론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즉, 2000년대 들어 발생한 ODA 공여중단이나 동중국해를 둘러싼 일중 간 자원개발 분쟁, 그리고 희토류를 둘러싼 자원분쟁을 보면, 중국위협론은 분명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국내시장을 중국에 내주고 있다든지 일본기업의 대중 직접투자 급증으로 일본 국내에 산업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든지 등의 근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춰 볼 때, 일중 경제관계는 상호보완관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게 본고의 주장이다.

주제어: 중국리스크, 중국위협론, 일중경제관계, 동중국해에서의 일중자원분쟁

전후일본의 보수주의와 『고코로』 | 장인성

투고일자: 2011년 12월 6일 | 심사완료일자: 2011년 12월 23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1월 26일

탈냉전과 지구화 맥락의 현대일본에서 국가의식과 애국심을 고양시키려는 보수의 정치화가 현저해지고 있다. 개인의 삶과 자유를 중시하는 일상적 보수는 퇴조한 듯 보인다. 하지만 전후일본의 보수주의는 일본인들의 일상적 보수를 알아야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월간문예지 『고코로』(1948~1981)에 참여한 보수지식인들의 활동과 사상에서 전후일본에서 영위된 일상적 보수의 모습을 읽어 낼 수 있다.

아베 요시시게, 무사노코지 사네아쓰, 시가 나오야 등 다이쇼 교양주의와 자유주의를 사상적 기조로 삼았던 '올드 리버럴리스트'들은 전후에 『고코로』를 매개로 유연한 지식인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언설 활동을 주도했다. 고코로 보수주의자들은 패전 직후와 냉전 초기에 전후일본의 지식사회를 주도한 『세계』 지식인들의 진보주의와도 거리를 두었고, 『사상의 과학』 지식인들의 과학주의에도 대항하면서, 자유주의와 교양주의에 기초한 문화적 보수주의를 표방했다.

고코로 보수주의자들은 투쟁과 정치와 이론보다는 교양과 문화와 체험을 중시했다. 진보지식인들의 정치적 민주국가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교양과 문화를 중시하는 문화

국가를 선호했으며, 추상적 이념에 의거한 혁신보다는 생의 의지가 반영된 구체적 체험에 기초한 변화를 추구했다. 공동체의 질서를 전제로 개인의 자유를 용인했으며, 진보 지식인들의 이념적 절대평화론을 부정하고 생의 의지와 투쟁에 의해 구성되는 평화를 상정했다. 고코로 보수주의는 경제성장과 지구화의 경쟁적 맥락에서 교양주의와 문화주의가 설 땅을 잃으면서 투쟁적 보수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다.

주제어: 『고코로』, 『세계』, 『사상의 과학』, 전후일본, 고코로 그룹, 올드 리버럴리스트, 보수주의, 교양주의, 문화주의, 진보주의, 과학주의, 개인, 자유, 체험

Keywords : China Risk, Chinese Threat to Japan, Japan-China economic relationship, Japan-China conflicts over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in East China Sea

***Gokoro* Intellectuals' Conservatism in Postwar Japan** _ JANG In Sung

In the context of the post-Cold War and globalization Japanese conservatives' activities to promote national identity and patriotism have become prominent. Accordingly it seems daily life conservatism respecting the life and freedom of the individual is decreasing. Japanese conservatism, however, cannot be properly explained without investigating into the Japanese way of acting and thinking in their life. Daily life conservatism in postwar Japan can be grasped by probing into conservative intellectuals' activities and writings in the monthly literature magazine *Gokoro* (1948~1981).

“Old liberalists” including Yoshishige Abe, Saneatsu Mushanokoji and Naoya Shiga, who had conveyed cultural liberalism in Daisho period, reappeared as liberal conservatives, forming a flexible cluster of conservative intellectuals to cope with the post-war intellectual change. *Gokoro* intellectuals expressed their conservatism based on cultural liberalism while keeping a considerable distance from Sekai intellectuals' progressivism and being antagonistic to Shisono Kagaku intellectuals' scientism.

Gokoro conservatives respected liberal culture and experience rather than politics and theory. They believed Japan must make a cultural liberal state, not a political democratic state Japanese progressivists tried to realize. They favored Japan's change inducing by people's concrete experience where the will to life worked, not its radical innovation deducing from theorists' abstract ideas. While respecting individuals' freedom they thought it must not harm the order of the community. They assumed the real peace can be constructed with the will to life and struggle, criticizing the progressivists' abstract ideas of absolute peace. *Gokoro* conservatism had to see the rise of militant conservatism when cultural liberalism had faced the competitive context of economic growth and globalization.

Keywords : *Gokoro*, *Sekai*, *Shisono Kagaku*, postwar Japan, *Gokoro* group, old liberalists, conservatism, liberalism, Culturalism, progressivism, scientism, individual, freedom, experience